

보도시점 : 2024. 5. 1.(수) 11:00 이후(5. 2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5. 1.(수)

## “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여행”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

- 휴게소 기본기능 향상과 함께 지역 개방형 휴게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-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 휴게시설 → 이용자가 즐거운 휴게시설로 발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「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」을 추진한다.
  -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하였다.
-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.
  - 이 중 100개(42.4%)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,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, 시설 이용 편의성,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(2023) 결과 만족도\*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,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    - \* (주차) '21년 85점 → '23년 82점 (보행) '21년 83점 → '23년 82점 (시설) '21년 84점 → '23년 83점
  - 또한,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,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.
  - 이에 따라,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·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,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.

□ 우선, 주차장 안전,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.

○ 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(2.5→2.7m),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 방지형 횡단보도 설치, 대형·소형차 분리,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 「주차장 표준 안전모델」을 지속 확대한다.

\* 현재 68개소 도입 → '24년 중부선 이천(하남), 서해안선 화성(서울) 등 9개소 추가 설치

\*\* '30년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에 설치하고,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확대 검토

○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\*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.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,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'24년 2개소 시범운영 : 수도권1순환 김포졸음쉼터(판교), 경부선 오산졸음쉼터(서울)

○ 또한,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\*하고 주말,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\*\*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\* 노후 시설물 : 現) 비정기 점검 → 改) 점검 정례화(월1회 육안점검, 반기1회 구조점검)

\*\* 화장실 청결 : 現) 평균 1일 3회 → 改) 주말명절 등 이용객 수가 많을 경우 1일 4회이상 확대

○ 아울러, 휴게소 서비스 평가\* 시 노후 시설물 관리,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,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·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\* (서비스 평가제도)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시설물 관리·안전관리 상태,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업체 재계약 등에 활용

□ 둘째,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.

○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·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.

\* '23년 3개소(덕평, 정읍, 진주) → '24년 5개소(이천, 논공, 강천산, 추풍령, 춘향)

-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\*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
\* 강천산 휴게소(광주대구선) : 고추장 마을, 춘향 휴게소(순천완주선) : 벽화마을

○ 또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,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.

○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\*, 로봇 카페\*\*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\* (로봇 카페) '23년 49개소 → '24년 65개소 확대

\*\* (로봇 셰프) 영동선 문막 시범도입(2월~), 한식(5종), 우동(3종), 라면(4종) 조리 가능

□ 셋째, 휴게시설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\*한다.

\* 복합 환승센터(하남드림휴게소), 환승정류장(신탄진 휴게소·졸음쉼터)

○ 또한, 고속도로 진·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 IC 설치를 확대\*하고, 휴게소 내 전기·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\*\*할 계획이다.

\* '24년 2개소(신탄진, 고삼호수), '25년 2개소(입장, 남영덕) 등

\*\* (전기충전) 누적 1,362기('23년) → 1,700여기('25년), (수소 충전) 대용량 6기 설치(~'25년)

□ 이번 개선방안 중 노후 시설 점검,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·시행하고,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“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,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”면서

○ “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스·안전 품질을 확보하고,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장	지동선 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 (044-201-3912)
		담당자	주무관	임정훈 (044-201-3920)
관련 기관	한국도로공사  휴게시설처	책임자	처장	김희태 (054-811-2301)
		담당자	차장	박인선 (054-811-2311)
		담당자	차장	안혜림 (054-811-233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**참고**

**「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」 관련 참고자료**

**①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한 기본기능 강화**

○ 주차장 표준모델



<표준모델 도입 전>



<표준모델 도입 후>

○ 졸음쉼터 주차혼잡 사전 안내



<현재>



<설치 후(예시)>



## ② 즐거움이 있는 휴게소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

### ○ 개방형 휴게소 사례

정읍(천안)휴게소 조성 관련 위치도



진주(부산)휴게소 조성 관련 위치도



덕평휴게소 조성 관련 위치도



### □ 로봇 셰프, 로봇 카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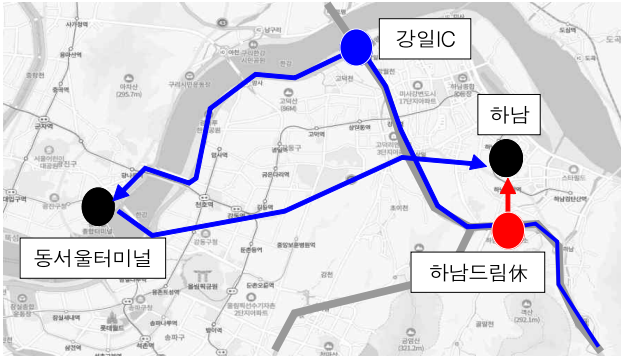
<로봇셰프>



<로봇카페>

### ③ 휴게시설을 이용한 고속도로의 교통 기능 강화

○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(하남드림 휴게소 추진 중)



<동선 개선 효과>



<하남드림 휴게소 조감도>

○ 하이패스 IC 확대



<하이패스 IC 개념도>

○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확대



<전기차 충전시설>



<수소차 충전시설>